김영록 지사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가 최적지”

공모 발표평가에 PPT발표 나서 강력한 유치의지 피력

“부지 안전성·정주여건·주민수용성 등 3박자 완비”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평가에 앞서 도청에서 전남도, 나주시 등 관계자와 함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부지 공모 발표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맡아 강한 유치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내며 “나주가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지”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평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맡으며 나주시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세계를 밝히는 인공태양, 전남이 꿈꾸고 나주에 품다’를 슬로건으로 약 1시간 동안 발표한 김 지사는 “나주는 안전성, 확장성, 산학연 역량, 정주 여건, 주민 수용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남도가 제안한 나주 후보지는 화강암 기반의 평탄하고 안정적 부지로서 지난 50년간 지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이력이 전무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정부가 요구한 기본 부지 50만㎡의 2배가 넘는 100만㎡ 이상 제공이 가능하고, 연접한 에너지 국가산단 등 주변으로 추가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인근 실거주자의 100% 동의를 얻었고, 12만 나주시민 전체 지지 서명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고의 주민수용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조기 건설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는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구축 중으로, 향후 핵융합 실증·핵심소재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전 등 700여 에너지 기업이 집적화된 연구·산업 생태계 역시,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한다.

접근성과 정주 여건도 뛰어나다. KTX 나주역 7분, 무안국제공항 30분 등 접근성이 뛰어나며, 나주혁신도시와 광주권의 우수한 의료·교육·문화 인프라를 모두 향유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이 진정한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핵융합”이라며 “정부가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시작으로 핵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전남 나주에 유치되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모 당시, 정부가 전남의 유치 노력과 진정성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 때문에 후속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전남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5일 과기부의 인공태양 부지 공모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남도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지난 13일 유치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18일 부지 현지 실사와 이날 발표심사도 차질없이 마쳤다.

전남도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평가단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내일부터 백운교차로 부분 통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로 인해 오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남구 대남대로 주월교차로~백운교차로 280m 구간의 도로 통제를 확대한다. 이번 통제로 인해 기존 편도 3~4차로가 편도 2~3차로로 줄어든다.

이 구간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대남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복공판 지지대 제거 작업을 앞두고 폭 10m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통제를 결정했다.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우회도로·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통제 구간 차량 우회도로는 △농성교차로에서 백운광장 방향 → 월산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광주대에서 백운광장 → 호반힐하임 교차로에서 양궁장 방향 △남광주(봉선·방림)에서 백운광장 → 미래아동병원 교차로에서 기독병원(수피아여고) 방향 △봉선동에서 백운광장 방향 → 대화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봉선중앙로(봉선초교) 방향 등이다.

▶1면 ‘영농형 태양광’서 계속

현행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간을 제한해 장기 운영이 어렵고,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80% 이상인 전남에서는 대규모 단지 조성이 쉽지 않다. 수익 분배 기준 부재, 전력망 연계 불확실성 등도 현장의 고질적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 심사 중이다.

최근 토론회에서 농업인과 전문가들은 영암·보성 실증 사례를 근거로 “전력 판매 수익은 농가 생계 안정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이미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을 갖춘 만큼 특별법 제정과 제도 기반 확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AI 미래형 교실’ ‘인공지능 시대, 상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지난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2025 AI 광주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AI팩토리(미래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시교육청이 AI광주미래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수업 혁신 사례와 교육기술 활용 방안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K-해조류 경쟁력 강화…완도해조류산업박람회 시동

2028년 4월 21일~5월 14일 시장 선점·수출 경쟁력 확보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장 조감도

전남도는 최근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개최 계획서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조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박람회 추진 체계에 시동을 걸었다.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는 2028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해조류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선점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도약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박람회를 통해 전남도는 국내 해조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박람회는 ‘해조류, 생명의 기원에서 인류의 미래로’를 주제로 운영되며 박람회 기간 해조류 이해관, 생태관, 양식관, 미래관, 로컬관, 특별기획관, 체험관 등 7개 전시관이 마련된다.

또 국제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체험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026년 7월 국제행사 승인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 심의 준비와 박람회조직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 절차 이행을 통해 박람회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20개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26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8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채 도 해양수산국장은 “박람회가 전남 K-해조류의 세계시장 선점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해조류는 바이오 소재, 블루카본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해조류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기자 holbul@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혁신당 당대표에 조국…찬성률 98.6%

“신항로 개척”…최고위원엔 신장식·정춘생 당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지 꼭 100일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98.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혁신당은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은 신항로를 개척하겠다”며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의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또 당 대표 선출 후 수락 연설을 통해서는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같이 이뤄내는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날 최고위원 선거에는 신장식, 정춘생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차기 지도부는 조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산구 4개 산단 중기특별지원 2년 연장

대유위니아 사태 여파 반영…2027년 11월까지

광주 광산구는 하남·진곡·평동 1·2차 산업단지와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가 2027년 11월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원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는 기존 지정기간이 지난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산업단지 경영난이 지속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입주 중소기업은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 우대와 중기부 사업 평가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번 연장은 2023년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로 협력업체 피해가 컸던 점이 반영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원지역 연장이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